

디스플레이(Overweight)

Apple 폴더블, 2026년 출시 일정 유지 전망

Issue Comment

[이차전자/디스플레이] 정원석 2122-9203 wschung@ifmsec.com

[전기전자] 고의영 2122-9179 ey.ko@ifmsec.com

Apple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계획 변화 없다

최근 일부 외신과 국내 언론을 중심으로 Apple의 폴더블 제품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0월 14일 일본 미즈호증권이 발간한 Apple 보고서이다. 이들은 Apple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최종 설계 및 사양 확정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존 예상 시점인 3Q26에 출시가 쉽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 이후 시장에서는 Apple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개발 일정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한 달간 Apple 폴더블 관련주의 상승률은 섹터 내에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당사가 주요 핵심 부품 공급망(SCM) 업체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pple의 폴더블 제품군 중 태블릿형 폴더블 출시 시점이 당초 계획이던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약 1년 가량 연기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폴더블 스마트폰의 부품 양산 및 공급 승인(PO) 시점은 기존 2026년 6월 전후 계획에서 변동이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최악의 경우 2026년 9월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18 시리즈와 동시에 신제품이 발표된 이후 부품 수급 및 생산 이슈로 인해 완제품 출하 일정이 1~2개월 가량 지연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 변경은 수요가 소멸되는 구조적 리스크가 아니라 단기 지연이기 때문에 Apple 및 관련 부품 공급업체들의 중장기 실적 펀더멘털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6년이 아이폰 출시 10주년에 해당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pple이 제품 혁신 주기의 상징적 이벤트로서 폴더블 신제품 출시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의 우려와 달리 폴더블 아이폰의 2Q26 양산 체제 및 3Q26 출시 시점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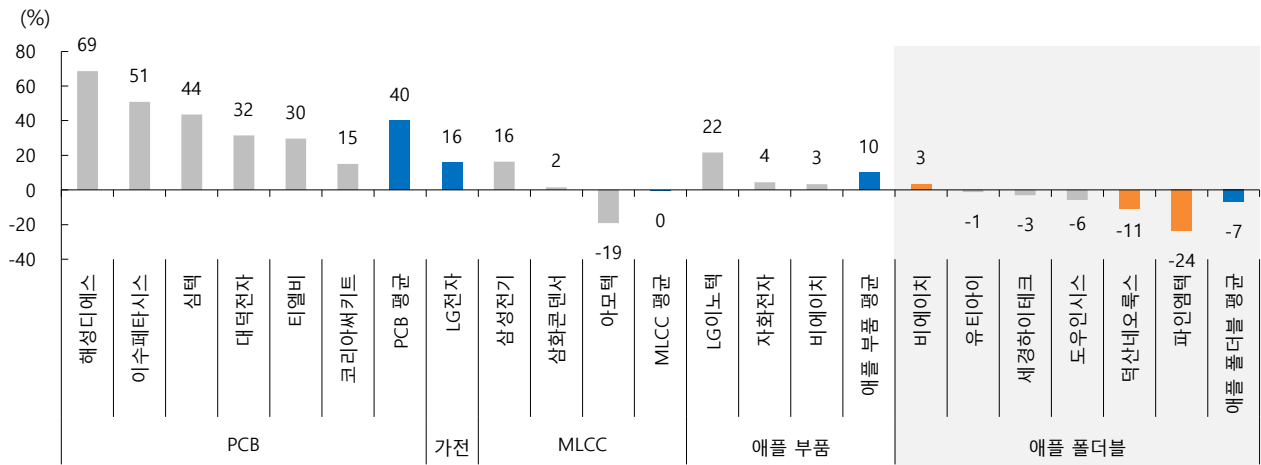
Apple 폴더블 스마트폰 업체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 점진적으로 강해질 것,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최근 덕산네오룩스, 파인애플, 비에이치 등 Apple 폴더블 스마트폰의 주요 예상 수혜 업체들의 주가는 지난 9월부터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가 조정은 ① 국내 증시 내 자금이 반도체, 2차전자 등 주도 업종으로 집중되며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향, ② 아이폰 신제품 공개 직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출시 직후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전통적인 계절적 패턴, 그리고 ③ 앞서 언급한 Apple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연기 루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 9월 공개된 아이폰17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Apple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 주요 부품사들의 주가는 단기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Apple 폴더블 스마트폰의 양산 및 출시 시점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부품사들의 밸류에이션 매력과 모멘텀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소재를 공급하는 덕산네오룩스의 현 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 12.8배 수준으로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할 때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폰 폴더블에는 COE(Color on Encapsulation) 기술이 적용될 계획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블랙 PDL(Polymer Depletion Layer) 소재가 필수적이다. 또한 폴더블 구조 특성상 내, 외부 디스플레이 면적이 기존 아이폰 대비 약 2.5~3배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폴더블 아이폰 출하량 2,000만대 가정 시 실적 효과는 기존 아이폰 5,000~6,000만대 수준에 상응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2026년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 S26 울트라와 2027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등 기존 바(Bar) 타입 스마트폰에도 COE 기술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덕산네오룩스의 기술 독점력 및 수익성 확대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파인애플은 폴더블 내부 힌지 및 커버윈도우 관련 부품을, 비에이치는 OLED용 FPCB를 각각 공급하고 있어 폴더블 아이폰의 본격 양산 시점에 직접적인 손해가 예상된다. 비에이치는 폴더블 구조 특성상 패널당 FPCB 채용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바 타입용 FPCB 대비 판가가 2.5배 비싸질 것으로 추정한다(내부, 외부 패널 합산 기준). 파인애플 역시 내장 힌지 모듈 및 커버글라스의 내구성 강화 기술을 선행 확보한 점이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160억원 규모의 UV Laser 설비 투자를 추가 공시한 바 있다[링크]. 양사 모두 단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아쉬우나 지금의 주가 조정은 구조적 성장을 앞둔 일시적 조정 국면인 것으로 판단된다. 폴더블 아이폰 공개 시점이 다가올수록 관련 부품사들의 주가 모멘텀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사는 단기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조정 구간을 중장기 관점에서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그림1. 지난 1달 간 Apple 폴더블은 주요 소액터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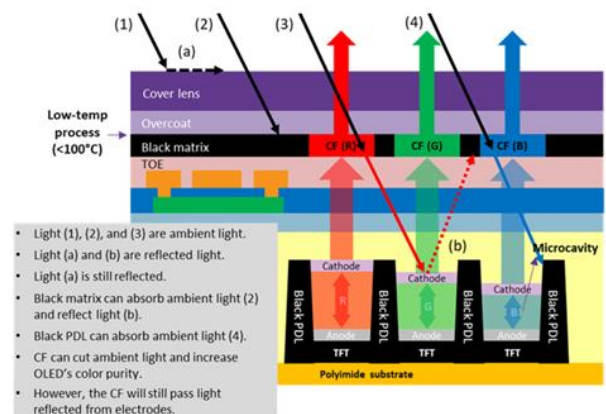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2026년 하반기 Apple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예정



자료: PhoneArena,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블랙 PDL이 적용된 COE OLED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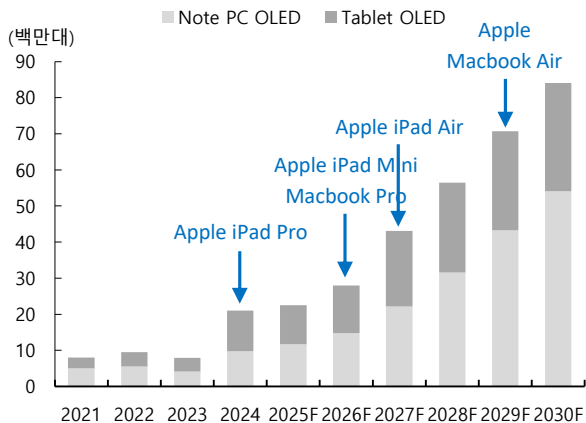
자료: OMDIA, iM증권 리서치본부

표1. Apple 스마트폰 OLED 패널 기술 로드맵

		LTPS	LTPO	LTPO+
	2025	2026	2027	2028
SE Line-up	iPhone 16e Flexible OLED (LTPS) 6.06" 2532x1170 460ppi (Pentile)	iPhone 17e Flexible OLED (LTPS) 6.12" 2556x1179 460ppi (Pentile)	iPhone 18e Flexible OLED (LTPS) 6.12" 2556x1179 460ppi (Pentile)	iPhone 19e Flexible OLED (LTPS) 6.27" 2622x1206 460ppi (Pentile)
Normal Line-up	iPhone 17 Flexible OLED (LTPO) 6.27" 2622x1206 460ppi (Pentile)		iPhone 18 Flexible OLED (LTPO) 6.27" 2622x1206 460ppi (Pentile)	iPhone 19 Flexible OLED (LTPS) 460ppi (Pentile)
Plus/Air Line-up	iPhone 17 Air Flexible OLED (LTPO) 6.55" 2738x1262 460ppi (Pentile)	iPhone Air Flexible OLED (LTPO) 6.55" 2738x1262 460ppi (Pentile)	iPhone Air 2 Flexible OLED (LTPO+) 460ppi (Pentile)	iPhone Air 3 Flexible OLED (LTPO+) 460ppi (Pentile)
Pro Line-up	iPhone 17 Pro Flexible OLED (LTPO) 6.27" 2622x1206 460ppi (Pentile)	iPhone 18 Pro Flexible OLED (LTPO) 6.27" 2622x1206 460ppi (Pentile)	iPhone 19 Pro Flexible OLED (LTPO) 460ppi (Pentile)	iPhone 20 Pro Flexible OLED (LTPO) 460ppi (Pentile)
	iPhone 17 Pro Max Flexible OLED (LTPO) 6.86" 2868x1320 460ppi (Pentile)	iPhone 18 Pro Max Flexible OLED (LTPO) 6.86" 2868x1320 460ppi (Pentile)	iPhone 19 Pro Max Flexible OLED (LTPO) 460ppi (Pentile)	iPhone 20 Pro Max Flexible OLED (LTPO) 460ppi (Pentile)
Foldable Line-up		iPhone Fold Foldable OLED 7.5" 430ppi (LTPO/Main) 5.5" 460ppi (LTPO/Cover)	iPhone Fold 2 Foldable OLED 7.5" 430ppi (LTPO/Main) 5.5" 460ppi (LTPO/Cover)	iPhone Fold 3 Foldable OLED 7.9" 430ppi (LTPO+/Main) 5.8" 460ppi (LTPO/Cover)
SE	Notch	Dynamic Island	-	LTPO
Normal	LTPO	BRS / FAA	-	-
Plus/Air	BRS / FAA, Slim	Thinner module	LTPO+, COE	UDIR
Pro/Max	-	UDIR	4-Edge bending	UDC, UDFI
Fold	-	UDC, COE	-	LT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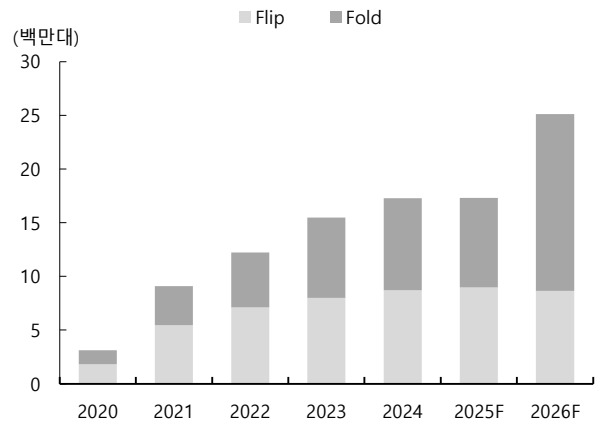
자료: OMDIA,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모바일 PC용 OLED 패널 출하량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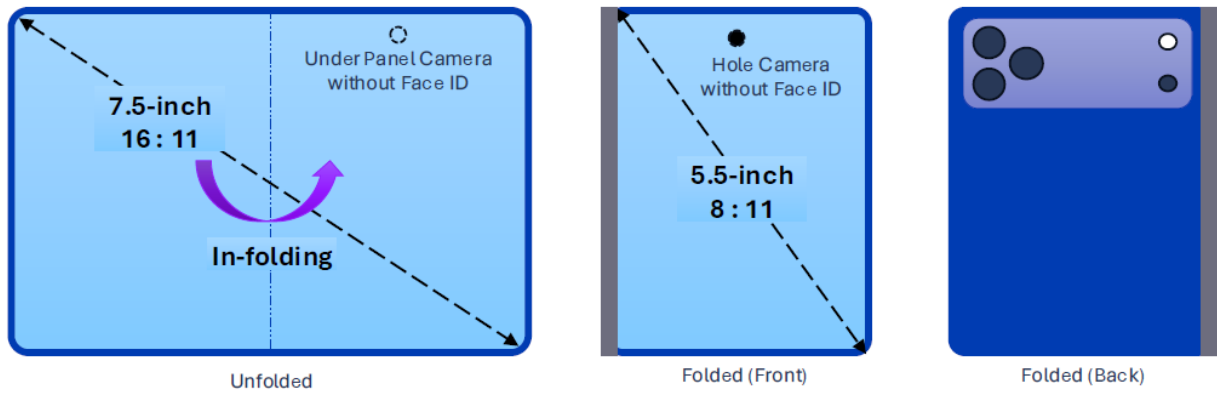
자료: OMDIA,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OMDIA,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Apple 폴더블 스마트폰 OLED 패널 예상 사양. 내, 외부 디스플레이 총 면적 기존 아이폰17 프로 대비 약 2.7배 증가



자료: OMDIA, iM증권 리서치본부

표2. Apple의 IT용 OLED 패널 로드맵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iPad	8.3" (Rounded Corner) IPS LCD + a-SiTFT (60Hz Frame Rate)				8.4" (Rounded Corner) Hybrid OLED + RGB Single + LTPO TFT (60Hz Frame Rate)				
	10.9" (Rounded Corner) IPS LCD + a-SiTFT (60Hz Frame Rate)					11" (Rounded Corner) Hybrid OLED + RGB Single + LTPO (60Hz Frame Rate)			
			10.9" (Rounded Corner) IPS LCD + Oxide TFT (60Hz Frame Rate)						
			12.9" (Rounded Corner) IPS LCD + Oxide TFT (60Hz Frame Rate)						
Macbook									

자료: OMDIA,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산업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Overweight(비중확대)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Neutral(중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 2025-09-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91%	8.3%	0.7%